

말씀묵상 소그룹 모임

인사	환영하고 축복하며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양	찬송가나 복음송을 1~2곡 부릅니다.
기도	순서를 미리 정하여 차례로 기도합니다.
말씀-삶 나눔	1. 말씀 나눔 동네세메줄성경이나 공예배의 설교에서 묵상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했나요? 2. 기도 나눔 한 사람이 2~3가지씩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후 인도자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거나, 참석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짚막하게 기도합니다.

※서로 협력할 사항

- 모임 시간은 40분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 말씀묵상을 서로 나눌 때 한 사람당 3~4분 정도가 좋습니다.
- 동네세메줄성경을 묵상하지 못한 사람은 생활 묵상을 나눕니다.
- 진행 순서를 잘 숙지하고 참여자들은 인도자를 도우며 따릅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작동하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귄다 사람 사이의 사귄다 안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격적인 사귄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인 사람 서로가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그런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모이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충분히 가능한 소그룹 모임 말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1675년에 처음으로 확인되는 라틴어 표현 ‘에클레시아 올라 인 에클레시아(Ecclesiola in ecclesia)’라는 말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병들고 타락한 당시 교회가 성경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경건주의 창시자 스페너 목사님이 쓴 표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앙 선배들의 외침과 헌신을 동네세메줄성경을 도구로 한 말씀묵상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 갑시다. 이 사역은 말씀삶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과제입니다. 60주년 사역으로 2025년까지 500명의 소그룹 인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임목사 지형은 올림